

이웃종교 RELIGION

‘대각개교절’ ‘부활절’ 행사 다채

원불교·기독교 경건한 명절나기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이다. 원 불교 등 이웃종교에서도 불교계의 봉축만큼 큰 행사가 이어져 눈길을 끈다.

#4월 28일 대각개교절

4월 28일은 원불교의 4대 기념일 가운데 가장 큰 기념일인 대각개교절(大覺開教節)이다. 대각개교절은 원불교를 창시자인 소태산(少天山) 박종빈 대종사(朴重彬·1891~1943·사진)가 우주의 진리를 ‘크게 깨달아(大覺), 원불교를 새로 연(開教)’ 날을 기리는 원불교의 경축일이다.



원불교는 대각개교절 94주년을 맞아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주제로 1일부터 5월 5일까지 봉축기간 동안 국내외 각 교당과 기관에서 법잔치, 은혜잔치, 놀이잔치로 각종 경축행사를 전개한다.

또 보은, 상생의 행복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해 24~26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축제를 여는

것을 비롯해, 4월 한 달간 전국 500여 개 교당에서는 무료 시술과 어려운 가정을 돕는 행사도 이어진다.

28일 대각개교절에는 전북 익산시 원불교 중앙총부 반백년기념관을 비롯한 전국 교당에서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과 원불교의 개교를 경축하고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종빈 대종사는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유년기부터 자연현상과 인생의 이치에 특별한 의문을 품고 도(道)에 발심해 20여 년간 구도 여행을 계속하다 1916년 4월 28일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깨달음을 이룬 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표어 아래 미신타파, 문맹퇴치, 저축조합운동을 전개하며 정신과 물질이 조화롭게 병진되는 새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원불교의 교문을 열었다.

#4월 12일 부활절

12일 부활절을 맞은 개신교와 가톨릭계의 행사도 다양했다.

‘예수 부활 대축일(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춘분(春分)이 지난 만월(滿月)이후의 첫 주일을 정하는 까닭에 매년 부활절 날짜가 다르다.

12일 가톨릭과 개신교는 ‘예수 부활대축일미사’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등 경축행사를 진행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11일 ‘부활성야미사’와 12일 ‘예수부활대축일미사’를 명동대성당에서 집전했다. 이어 전국 1600여 성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미사가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신형 목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삼환 목사)는 4월 12일 새벽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시청 서울광장에서 ‘2009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준비위는 이 행사를 통해 ‘부활과 희망’을 주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너은 기자

故 김수환 추기경 49재 추모미사

정진석 추기경 “김 추기경이 남긴 가르침 실천하자”

“故 김수환 추기경님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4월 5일故 김수환 추기경 49재 일과 ‘주님수난성지주일(受難聖枝主日)’을 맞아 서울대교구 용인 공원묘지 내 성직자묘역(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김 추기경 묘소

에서 추모미사가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신자 1000여 명이 참석해故 김수환 추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

행사에서 정진석 추기경은 미사 시작에 앞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 우리에게 남긴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자”며 “믿음과 열성을 다해 주님

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다.

한식을 맞아 성묘를 위해 용인 공원묘원을 찾았다가 미사에 참여한 이들도 많았다. 김수환 추기경 장례 이후 용인공원묘원을 찾는 참배객은 4월 5일자로 3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너은 기자

“부처님 자비 온누리에 나눠요”

장애인의 날 가정의 달 맞아 불교단체들 다채로운 행사 마련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는 제등행렬과 연등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과, 5월 2일 부처님오신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 및 단체들도 펼치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맑고 밝은 봉축 분위기를 우리 사회 곳곳에 전달할 교계 단체들의 프로그램은 자비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과 아름다운운동행은 4월 11일 저녁 서울 조계사, 대구 동화사,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저소득·실직가정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1배 100원) 정진기도’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과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실직가정의 난치병환자들의 쾌유를 기원·지원하기 위해 1배 100원 모금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올해 9회를 맞는 2009년 행사는 그동안 서울 조계사에서만 진행했



2007년 조계사에서 열린 3000배 정진기도 모습.

던 것을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 등에서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3000배 정진기도 행사는 매년 약 5000여 만원의 기도모금을 통해 3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해 왔다.

아름다운 동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이웃을 위

한 호응을 받고 있다.

생령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02-734-8050)는 4월 20~30일 생령나눔신청자들 중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환자들을 위한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펼친다.

연등과 함께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려는 운동은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02-733-7277)에 의해서도 전개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4월 14일~5월 9일 인사동 일원에서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달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도 마련됐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02-2202-5831)은 4월 17일 장애인들과 함께 군부대를 견학하고 체험한다.

원심회(회장 김장경·02-720-4528)는 4월 18~19일 장애인들과 함께 충북진천 보탑사를 방문한다. 조계사(주지 세민·02-732-2115)는 4월 23일 목거노인, 군장병, 재소자에게 자비의 선물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너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다문화가족 자녀는 민간 외교관”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지원책 내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채희)는 4월 2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이중언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언어교실’을 지원할 뜻을 밝혔다.

전채희 장관은 “다문화가족 자녀는 한국과 외국인 부모간의 출신국을 잇는 잠재적인 민간 외교관”이라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영어권 국가 출신 다문화가족이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사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중언어 사용이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불교계 다문화관련지

원 복지단체들도 한국어교실프로그램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범등·054-458-0230)은 구미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20세대를 대상으로 한글교실(집합지도 및 방문지도)을 운영 중이다.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장 진오·054-439-8280)는 김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준별 한국어교육을 지원한다.

꿈을이루는사람들(관장 진오·054-443-0755)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교실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실과 다문화 이해 교실 등을 운영 중이다. 이너은 기자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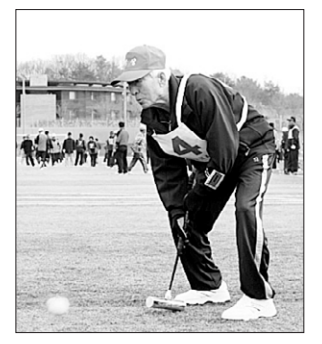
혜경 스님 “5회부터 경기코트 늘릴 것”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는 4월 3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제4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해 게이트볼로 불심을 다졌다. 또한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의 무료진료와 전등사 신도회의 음식봉사는 큰 호응을 얻었다.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는 지난 2006년 첫 대회 이후 4회째를 맞는 지역 축제다. 이번 대회만 해도 79개 팀이 참가했을 정도로 열기가 높다.

4회대회에서는 교동면 지식리 팀이 우승을, 불은면 덕성리B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제4회 강화게이트볼 대회에서 게이트볼에 빠진 어르신.

혜경 스님은 “지역 주민의 지원과 관심으로 강화에서 가장 큰 축제로 발돋움했다”며 “5회 대회부터는 경기코트를 늘려 100개 이상의 팀이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탈 종 공 고

◇사찰명: 금강정사 주지: 지웅 (권영로) 주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백곡리 255-2번지

◇사찰명: 운암사 주지: 운암 (황영규) 주소: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306번지

◇사찰명: 우리불원 주지: 일오 (박성훈) 주소: 경남 양산시 북구동 696-6 (3층)

◇사찰명: 옥련암 주지: 혜령 (강일선) 주소: 울산 울주군 법서읍 서리리 437-4번지

◇사찰명: 관음사 주지: 원공 (공유철) 주소: 경남 통영시 북신동 138번지

◇사찰명: 불광사 주지: 청봉 (김정현) 주소: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사찰명: 지장사 주지: 현오 (김태성) 주소: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옥천리 536번지

◇사찰명: 약사사 주지: 법련 (심성희) 주소: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080-4

◇사찰명: 봉경사 주지: 아산 (이옥례) 주소: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183번지

◇사찰명: 성덕암 주지: 지오 (김영규) 주소: 경남 양산시 명동 781-21번지

◇사찰명: 관음사 주지: 운산 (이길낙) 주소: 울산시 남구 두왕동 648-5번지

◇사찰명: 용화사 주지: 호산 (신성호)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40

◇사찰명: 금강선원 주지: 법전 (김기영) / 지성 (박순덕)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95-17번지

◇사찰명: 원효암 주지: 운오 (임복균) 주소: 경남 양산시 평산동 567-6

◇사찰명: 소원사 주지: 월오 (황월오) 주소: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사찰명: 도경사 주지: 도경 (오세광) 주소: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21번지

상기 사찰과 상기인 들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4월 15일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대행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Advertisement for Dolgorae Super Instant Electric Boilers, featuring product images and text: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Advertisement for Dolgorae Super Enertec, featuring text: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02)471-2356. 상담전화: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